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연합부대 지휘부와 관하군부대들을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오중훈7대대장을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 이른아침 멀고 험한 산밭들을 넘고넘으시여 군부대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목에여 터쳐올리는 해병들의 우렁찬 함성이 망망한 바다우로 힘있게 메아리쳐갔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격정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해병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조국의 바다를 굳건히 수호해가고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 해병들이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실, 사적합선, 혁명사적표식비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바람채찬 항구에 정박해있는 함선에 오르시여 전투기제들의 경상적인 동원준비상태를 료해하신 다음 해병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군부대의 장병들이 날강도 미제와 그 주구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전투근무를 경각성있게 수행하고있으며 혁명적인 훈련기풍을 확립하여 일당백의 용사들로 튼튼히 준비하고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위해 헌신분투하는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들을 제시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회관과 군부대의 종합편의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해병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실태와 후방사업정형을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158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 해병들이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의 바다를 철벽으로 지켜가기를 바라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신 다음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우렁차게 부르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해병들에게 최고령도자께서는 거듭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 관하 부대의 병실, 교양실, 식당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해병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이어 찬바람이 불어치는 군항에 나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어뢰정 1307호에 몸소 오르시여 전술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물보라를 날리며 전진하는 어뢰정의 지휘소에서 뻗힌 해풍을 맞으시며 해병들의 훈련모습을 주의깊게 보시던 최고령도자께서는 속도를 더 높이라고, 대담하게 기동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민활하고 정확하게 침로를 변화시키며 능란한 항해술로 정을 지휘하는 장정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잘한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훈련을 끝마치고 선수갑판에 정렬한 해병들을 치하하시면서

용감하고 대담한 공격정신을 발휘한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먼저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군사대상물과 작전연구실, 강실, 도서실들을 돌아보시면서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부대의 전체 장병들이 적들의 침략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전투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해군의 위치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해군무력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오늘 연합부대를 돌아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무엇보다 싸움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휘관들이 합심하여 일을 잘하고있는것이 기쁘다고, 이곳 연합부대가 지켜선 조국의 바다는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면서 시찰의 길에서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고 정신이 맑아졌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싸움준비를 잘하고있는 이런 부대에는 무엇이든 해주고싶은 심정이라고, 연합부대의 싸움준비에서 걸린 문제는 다 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대해갈은 온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지휘부와 관하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먼저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 대련합부대 지휘부에 도착하시자 장병들이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의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천지를 진감하며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 메아리쳐갔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장병들에게 오래도록 손을 저어 답례하시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면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대련합부대의 자랑찬 행로를 헤아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작전연구실과 사격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의 훈련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대련합부대의 전방지휘소를 시찰하시였다.

대련합부대장병들이 조선로동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숭고한 조국애, 원수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와 적개심을 안고 모든 작전지역들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였으며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일격에 격파분쇄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튼튼히 준비된대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에서 백전백승의 위용을 떨쳐온 자랑스러운 부대들이 철벽의 진을 치고있는 방어전연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면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을 위해 헌신분투하는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적들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원수들을 방어전연전방에서 철저히 격멸소탕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지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오중훈7대대장을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56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장으로 부터 결심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부대의 훈련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도서실을 비롯한 사상문화교양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업진행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해가 뜨고 어둠이 길게 드리웠어도 시찰의 길을 멈추지 않은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 직속중대의 병실, 교양실, 훈련상학실들을 돌아보시면서 병사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지휘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병사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라고, 그래야 훈련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으며 부대의 전투력도 높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김정일훈장, 김정일상, 김정일청년 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



김정일훈장



김정일상금메달



김정일청년영예상메달



김정일소년영예상휘장

김정일훈장, 김정일상,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제정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월 3일 발표되었다.

정령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의 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회세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시며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적생애를 수놓으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라고 하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전생애는 주체의 밝은기쁨이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시며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탁월한 령도자, 절세의 위인, 혁명의 대성인의 빛나는 한생이었다고 지적

하였다. 정령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믿음의 신심과 의지를 안겨주는 승리의 기치, 정신력의 원천이었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존함과 태양의 모습을 상징깊이 간직하고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 군부대들과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훈장을 제정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훈장은 김일성훈장과 함께 우리 나라의 최고훈장이다. 정령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 체육사업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들과 대상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상을 제정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상은 김일성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고상이다. 정령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승리로 이끌어오신 청년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모범적인 청년동맹 조직들과 일군들, 청년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제정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청년영예상은 김일성청년영예상과 함께 조선청년들의 최고상이다. 정령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서 소년단조직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소년단원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아버지장군님의 거룩하신 존함과 태양의 모습을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하는데서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제정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소년영예상은 김일성소년영예상과 함께 조선소년들의 최고상이다. 본사기자

백두산 3대장군께

내 팔국제평화상을 드리였다

백두산3대장군께 주제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에서 내팔국제평화상을 드리였다.

백두산3대장군께 드리는 내팔국제평화상을 전달하는 행사가 1일 까뜨만두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행사장에 전시되어있었다.

행사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0돐 기념 내팔국주비위원회, 주제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내팔자력갱생연구회 인사들과 성원들, 국제 인사들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

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초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백두산3대장군께 드리는 내팔국제평화상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되었다.

행사에서 주제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만주 라뜨나 사끼야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김정일령도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계시였기에 오늘의 조선과 인민이 주어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 그대로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군사적위협과

압박책동을 선군의 위력으로 물리치시고 조선을 정치,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였다.

이것께서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 애석하게도 우리결을 떠나시였다.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들의 불멸의 업적은 력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것이며 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것이다.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수령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령도자로 모시어 조선의 밝은 미래가 담보되고 경제강국건설과 나라의 평화적통일이 실현될것이라고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정일화전시회 로씨야에서 진행

평명성절에 즈음하여 김정일화전시회가 1월 27일 로씨야 나호드까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산에 함께 계시는 립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전시회장에는 절세위인에 대한 만민의 흠모의 정이 어린 100여상의 김정일화가 황홀경을 이루고있었다.

나호드까지, 포끼노시, 아르콕시, 빠르잔스크시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 군중이 전시회장을 참관하였다.

참관자들은 붉게 핀 불멸의 꽃들을 돌아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의 격정을 터놓았다.

나호드까지 시장은 김정일화 전시회에 대한 로씨야 인민의 흠모심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잘 알수 있다.

시행정부는 앞으로도 김정일화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

려나갈것이다. 포끼노시 시장은 김정일화는 절세위인의 업적을 칭송하는 만민흠모의 꽃이다. 훌륭한 원예사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로씨야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자랑분이 되어 원동땅에 김정일화가 만발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연해변강주체 이따르-따쓰통신사 특파기자는 김정일화는 우리들에게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보게 한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위 인 의 한 생 과 힌 눈

흰눈이 초라없이 내린다.
이 나라 천만산악을 한품에 거느리고 하늘가에 치솟은 백두산은 흰눈을 띠이고 아버지장군님의 거룩한 한생이 어린 추억의 눈세개를 펼친다.
일찌기 폐교적부터 백두산을 민족의 정기 어린 성산으로 숭상하여야 우리 겨레의 마음속에 백두의 흰눈세개에 대한 숭고한 민족정신과 새로운 정서가 소중히 새겨지기 시작한다는 언제부러던가.
천고일벽 백두산에 하얀 눈이 류달리 많이도 내린 주제 31(1942)년 2월 16일.
백두산원시림, 사람의 키를 넘는 강설속에 뿌리내린 나지막한 통나무귀틀집에서 조국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아버지이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를 어머니라고 모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시었다. 천출위인의 장엄한 력사의 고고성에 화답하는 백두산의 거센 눈보라가 천지를 진동하시었다.
흰 눈 덮인 백두산은 선군태양이 솟아오른 민족의 성지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성스러운 인생의 요람이다. 그의 탄생은 인민을 위한 생의 출발이었다.
백두밀림을 뚫어놓는 세찬 눈보라를 호흡하시고 하늘땅을 진감하는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으로 들으시며 그이는 성장하시었다. 장군님의 한생은 위대한 눈보라한생이었다.
백두의 흰눈세개와 절세의 위인 김정일장군님은 너무도 잘 어울린다.
백두산이 력사와 더불어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간직한 흰눈은 이야기한다.
순결함과 청심함의 결정체인 흰눈!
백두의 흰눈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한생을 그처럼 고결하고 의롭게 바치신 그의 마음의 대명사이기도 한것이다.

백두의 흰눈세개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헌신의 세계이다. 위대한 헌신이야말로 아버지장군님의 참된 인생관을 꽃피우는 활동방식이었다. 그의 위대한 생애는 말없이 대지를 품어주고 자기를 통채로 녹여 만물이 생명을 주는 흰눈과도 같이 순결하였다. 백두의 흰눈세개에는 그의 고결한 천품이 력력히 여여하였다.
천품이란 인간이 지닌 특이한 성격과 성품으로서 타고난것이라고들 한다. 시대와 력사를 이끄는 위대한 령도자에게는 비범한 천품이 있었다.
아버지 김일성주석께서 인민에 대한 사랑은 그의 천품이라고 하는 생전의 가르치심이 귀가에 쟁쟁히 울려다녔다.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처럼 먹이시러 한여름에도 얇은 여름옷처럼도 얼음바위에 하얀 뿔뿔을 오랜시간 돌아보시고 삼복철 무더위날도 마다 하지 않으시고 곳곳의 양어장들을 찾으시면서 철갑상어 메기들을 비롯한 갖가지 물고기들, 지어 몸보신에 좋다는 자라도 인민의 식탁에 푸짐히 오를 그날을 그토록 바라신 것이시었다. 세상을 떠나시기 불과 한달전에도 지금은 도루메기철이냐 빨리 잡아 인민들에게 보내주자고 하시며 그 대책을 일일이 세워주신 장군님이시었다.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도 눈보라 헤치는 야전원탁에서 인민의 행복만 생활위해 마음쓰시며 순직하신분. 그의 위대한 심장속에는 백두의 실한풍을 맞받아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시어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백두산장군들이

신 아버지수령님과 김정숙녀사께서 언제나 함께 계셨다. 부연하건대 동서고금에 민족의 성산에서 태어나 한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한 하나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헌신의 그 길에 자신을 강그리 바친 위인이 있었던가.
역경을 헤쳐오시던 나날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나는 모든 정열을 쏟으며 선군을 하고있다. 내가 고생을 한것만큼 인민들이 잘 살 날이 앞당겨지기때문이다. 수령님의 한생을 생각하고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면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쉬고싶어도 될수 없다. 나는 우리 나라가 강성대국이 되고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서 부럽없이 살게 될 때 밀려들 잠을 못 자려고 한다. ...
조국인민들이 위대한 그들이 우리의 장군, 우리의 운명으로 부르며 바치 와도 눈이 와도 마르고 기뻐도 슬퍼도 마르고 또 마른것은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오직 진정만을 바치는데 참다운 아버지이기때문이다. 백두의 흰눈세개를 안으시고 류태 자주 인민에 대한 꿈을 꾸다고 하신 장군님.
그이께서는 나의 한생을 하나로 쥐여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인민이 바란다면 둘되어도 꽃을 피워 인민에게 영광을 드리고싶은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시었다.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사나운 눈보라를 헤쳐오신 장군님이시었다. 자신께서는 세월의 눈비를 다 맞고 어떤 고생을 겪을지언정 인민의 요람은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인민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시어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백두산장군들이

철했다.
한생 자신을 위한 일은 그 무엇도 허용하지 않으신 그이이시었다. 전사가 무슨 생일인가고 하시며 한번도 생일을 쇠신적이 가슴 불태우며 헌신의 그 길에 자신을 강그리 바친 위인이 있었던가.
역경을 헤쳐오시던 나날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나는 모든 정열을 쏟으며 선군을 하고있다. 내가 고생을 한것만큼 인민들이 잘 살 날이 앞당겨지기때문이다. 수령님의 한생을 생각하고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면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쉬고싶어도 될수 없다. 나는 우리 나라가 강성대국이 되고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서 부럽없이 살게 될 때 밀려들 잠을 못 자려고 한다. ...
조국인민들이 위대한 그들이 우리의 장군, 우리의 운명으로 부르며 바치 와도 눈이 와도 마르고 기뻐도 슬퍼도 마르고 또 마른것은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오직 진정만을 바치는데 참다운 아버지이기때문이다. 백두의 흰눈세개를 안으시고 류태 자주 인민에 대한 꿈을 꾸다고 하신 장군님.
그이께서는 나의 한생을 하나로 쥐여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인민이 바란다면 둘되어도 꽃을 피워 인민에게 영광을 드리고싶은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시었다.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사나운 눈보라를 헤쳐오신 장군님이시었다. 자신께서는 세월의 눈비를 다 맞고 어떤 고생을 겪을지언정 인민의 요람은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인민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시어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백두산장군들이

한 승리의 정치력사를 창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세계정치의 원로이시었다.
위대한 정치가이신 그의 한생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가슴은 뜨겁다. 무릇 어떤 정치이든 자기의 고유한 원리가 있다. 그리고 옛날부터 정치가는 사랑이나 중요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치가를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리해관계라 하였다.
하지만 한평생 인민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치의 한마디로 사랑의 정치이다. 선군정치에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 있다. 정치를 위한 사랑과 사랑을 위한 정치에는 하늘같은 차이가 있는것이다. 정치를 위한 사랑은 전략에 불과하고 사랑을 위한 정치는 천품의 발현으로 된다. 장군님께서 있어서 사랑이 컸 제이고 정치는 그 사랑을 베푸는 수단이고 방법이었다. 인민들을 친어머니사랑으로 안아주고 보살피려는 일이 바로 사랑의 화신인 그의 정사였던 것이다. <인민들이 좋아하오?>,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소?>라고 하시며 인민들이 일을 잘못하여 인민의 리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했을 때에는 그러도 참지 못하시며 사죄하도록 하시 장군님이시었다. 시련속에서 키운 힘은 무한했다. 그 힘이 있었기에 우주를 뚫고 인공지구위성도 쏘아쳐올랐고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핵융합도 미사일로 내렸다.
백두의 흰눈세개에서 조국의 통일도 온다. 온 나라가 명절분 위기로 설레던 주제 85(1996)년 2월에도 우리 인민은 조국을 하늘처럼 믿고산다고 하는데도 좌절과 실패를 모르고 성공

한 승리의 정치력사를 창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세계정치의 원로이시었다.
위대한 정치가이신 그의 한생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가슴은 뜨겁다. 무릇 어떤 정치이든 자기의 고유한 원리가 있다. 그리고 옛날부터 정치가는 사랑이나 중요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치가를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리해관계라 하였다.
하지만 한평생 인민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치의 한마디로 사랑의 정치이다. 선군정치에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 있다. 정치를 위한 사랑과 사랑을 위한 정치에는 하늘같은 차이가 있는것이다. 정치를 위한 사랑은 전략에 불과하고 사랑을 위한 정치는 천품의 발현으로 된다. 장군님께서 있어서 사랑이 컸 제이고 정치는 그 사랑을 베푸는 수단이고 방법이었다. 인민들을 친어머니사랑으로 안아주고 보살피려는 일이 바로 사랑의 화신인 그의 정사였던 것이다. <인민들이 좋아하오?>,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소?>라고 하시며 인민들이 일을 잘못하여 인민의 리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했을 때에는 그러도 참지 못하시며 사죄하도록 하시 장군님이시었다. 시련속에서 키운 힘은 무한했다. 그 힘이 있었기에 우주를 뚫고 인공지구위성도 쏘아쳐올랐고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핵융합도 미사일로 내렸다.
백두의 흰눈세개에서 조국의 통일도 온다. 온 나라가 명절분 위기로 설레던 주제 85(1996)년 2월에도 우리 인민은 조국을 하늘처럼 믿고산다고 하는데도 좌절과 실패를 모르고 성공

승업하신 영상을 비웠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총정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특출한 령도력, 고매한 인덕으로 조국인민들을 괴눈물의 바다에서 일으켜세우시고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승리의 진군길에 내세워주시었다.
세계가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하고 맞이한 조선의 2012년을 지켜보던 새해의 첫 아침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눈길인 산발을 타고다니시며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사단을 찾아가시었다. 105땅크사단은 명칭만 불러보아도 장군님의 체취와 체온이 느껴진다고 하시며 장군님사랑을 그대로 담아 병사들의 생활을 구수구수 돌보아주시던 인자하신 그 영상.
괴눈물이 습배인 새해의 흰눈에 선군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찍으시는 령장의 모습을 우러러 군인들이 격정속에 웨치던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가 행성을 뒤흔들고 있다.
우리 겨레는 2월과 12월의 흰눈세개와 더불어 이어지는 1월의 흰눈세개를 보았다. 그 세계에서 겨레에게 오신 또 한분인 백두명장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1월의 흰눈을 밟으시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비롯 한 군부대들을 뚫어서 찾으시며 위대한 계승의 선언, 승리의 선언을 높이 울리시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장엄한 첫진군을 시작할 올해의 뜻깊은 1월 8일, 새벽부터 흰눈이 소담히 내리었다. 평양의 거거리거리 가로수들에도 흰눈꽃이 폈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펼쳐가시는 내 조국의 밝은 모습이다. 눈부시게 찬란한 설정이다.
본사기자 박단희

조선의 영광. 민족의 대행운. 애국애족의 선군천만리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불면불휴의 선군장정이 계속되고있다. 어제는 땅크부대를 찾으시고 근위병들에게 평시에 훈련을 잘해야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시에 조국과 인민앞에 서는 성스러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훈련으로 밤을 새우고 새날을 맞는 백두의 훈련열풍을 새차에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고 고무하시고 오늘은 풍군과 해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면서 비행사들과 해병들의 훈련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격려해주시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존엄, 강성부흥은 총대강화의 근력에 달려있다.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에서 전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 자신의 결심이고 심정이라고 하시며 전진길을 이어가시는 그의 발걸음은 한평생 천리전선의 전초가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빛나는 계승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전생애는 총대와 함께 시작되고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떨치신 선군장정의 한생이였다.
일찌기 백두산에서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항일의 총포성이 울리는 전장에서 성장하셨고 반미대전에서 나날 총대의 귀중한 가슴깊이 간직하시면서 일생 군인으로 살것을 언약하신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총과 습격을 함께 하셨고 총대중지의 비범한 선군령도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셨다.
총대의 강약에 의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라는 력사의 철리와 피의 교훈 그리고 선군이 자 민족의 운명이고 존엄이며 자주이라는것을 절감하신 장군님께서선 선군으로 령도활동을 시작하셨고 반세

기를 헤아리는 장구한 세월 선군을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끄시어 강성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셨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 걸쳐 감행된 인류력사에서 있어본적 없는 가장 악랄한 공세였다.
정세가 가장 복잡하고 침에 한 시기에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신 장군님께서선 20성상 야전복자락 날리시며 언제나 전선에 최고사령부 직을 두시고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하시었으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데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그이의 선군장정은 자신의 한몸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를 안고 결심 무비의 헌신의 장정이였다.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과 한치 발발엔 천길낭떠러진 오성산칼바람길을 비롯하여 장군님의 선군의 자국 조국의 강하와 산발마다 찍히지 않은곳 없는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다가 설사 쓰러진다 해도 조국과 민족은 우리를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며 빨치산식강행군으로 천리전진길을 걷고걸으며 장군님이시었다. 한겨울에 단행선진 전진시찰이 눈덮인 빙설지를 헤가르고 눈물을 사정없이 흘리는 강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강행군길이었다면 한여름의 전진시찰은 땀으로 젖어드는 야전복을 말리우며 가야 하는 복다위의 강행군길이었다. 한치한치 과중한 육체적부담을 극복해야 하는 힘겨운 길이었다. 최고사령관이 전진길을 알차런 이런 령명처럼 차를 몰아보아야 한다시며 령령을 넘으시기도 하였고 오성산준령으로 알려진 오성산을 야전처의 터지는 다이아를 몇번이나 갈아대며 오르기도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조국의 군력강화를 위해 자신의 모

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우리 나라를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만드시어 그 어떤 의세도 감히 넘겨다보지 못하게 하시고 겨레의 다모임에 영원한 자주와 존엄의 하늘, 평화의 푸른 하늘을 펼쳐주시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장군님을 잃은 상실의 아픔이 날이 갈수록 더 크고 그이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사무쳐오는것은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오늘날의 이모든것이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전진길을 걷고걸으신 장군님의 로고와 헌신의 결심이기때문이다.
총대우에 강성국가의 기둥이 든든히 뿌리박게 되었다.
우주강국, 핵보유국, CNC기술의 최첨단들과, 주제철, 주제비료, 주제비닐론, 선군12령을 비롯한 단계 단사발과 기적은 선군이 안아온 강성변영의 고귀한 열매들이다.
조선반도에서 각일각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던 당시 미국의 언론들과 해외동포들이 만약 정쟁이 터지면 남조선사람들의 70%이상이 목숨을 잃게 되고 손손실액은 21조 204억 4 000여만US\$에 달한다고 했지만 공화국의 막강한 전쟁억제력에 의해 전쟁정계에도 치닫던 정세가 좌전되고 평화가 수호되곤 했다.
남조선의 《자주민보》는 만약 북이 선군정치를 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해서 군사적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이라크보다 먼저 북을 공격했었을것고 조선반도는 미국의 51년째 주로 되었을것이며 5천년의 력사를 자랑해온 우리 겨레는 인류사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말았을것이라고 전했다.
선군이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

주통일의 문을 여는 6.15시대와 같은 력사적현실을 생각할수 있겠는가.
선군위업의 최후승리는 선군령도의 확고한 계승에 의해 담보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의 뜻과 위업을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장군형의 정치가이시다.
군복을 입으신 날 일생을 총과 함께 하라고 총과 인연을 맺게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선군의 의지를 굳게 가다듬으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장군님을 함께 자군장정을 이어오셨다. 그 나날 최고사령부작전대앞에도 함께 계셨고 조국결사수호와 강성국가건설을 늘 항상 초강도강행군길도 늘 함께 걸으셨다. 총출한 군사실력과 령군공모를 지니신 그의 모습을 비오며 사람들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대대로이신 또 한분의 천출명장, 백두산형의 장군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복중의 복이라고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에 대해서도 미국 AP통신, 일본 교도통신, 남조선 《련합뉴스》를 비롯한 광범한 언론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을 고무할것이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김정은령도자의 정치방식을 시사해준다. 김정은령도자의 련이은 군부대시찰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유훈인 선군로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것이라고 전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국과 인민위해 한평생 선군길을 계시며 자손만대 무궁변영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은 길이 빛나고 있으며 계승의 힘찬 발걸음을 따라 선군승리의 력사는 줄기차게 흐르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박단희

아버이의 미소

인데도 마음은 후더워진다고 하시었다. 또 번듯하게 꾸려진 하나음악정보센터를 찾으시어서는 자신께서 지난 시기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체계적으로 수집해두었던 음악작품들을 모두 보내주겠다고하며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허나 장군님께서 현지도로 때문에 달리는 련차안에서 순직하시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온 나라 인민은 절통함에 목매어 울고올었다.
그이께서 심한 육체적고통을 느끼시면서도 인민들앞에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는것을 미처 몰랐던 피척감으로 흐르는 눈물을 견잡을수 없었다.
바로 그 전날 저녁까지도 사람들은 TV로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하나음악정보센터와 광복지구상업증심을 돌아보시며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환하신 모습을 비웃던것이다.
광복지구상업증심의 내부를 빠짐없이 돌아보시며 장군님께서선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상품들을 가득히 채워놓는것을 보니 추운 날

이 꽃피는 인민의 행복과 웃음이 그의 삶의 락이었고 고생의 전야였음을 오늘날도 뜨겁게 전하여주셨다.
지난 세기 90년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광란적진 반공화국로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던 때에도 인민은 언제나 그 미소를 보며 미래를 락관했다. 반세기를 넘어 얼어붙었던 북과 남양의 그 대결의 동태도 인민의 눈앞에서 녹아내렸다.
장군님께서선 미래에 대한 락관으로 한생 준엄한 생을 걸음을 웃음으로 헤쳐오시었다.
본사기자 리경월

아버이의 미소

백두밀림의 추녀났은 귀틀집에서 첫 고고성을 터치실 때에는 온 나라 인민에게 기쁨을 주시더니 햇빛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떠나가시던 영결의 100여리연도에 서는 온 나라 인민을 울게 하신분.
그런 빛나는 한생을 사신 아버지이시여서 장군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신다.
오늘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과 인정의 미소를 그대로 닮은듯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모시어 통일강성국가건설위업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확신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아버지장군님을 그리는 마음안고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활짝 피워간다.

동포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에 그렇게도 슬퍼 통곡을 하고있는것이였다. 말 그대로 북녘동포들의 혼연일체가 출수 있었다.
나는 1994년 김일성주석 서거 당시에도 범민련 미주위원회 양은식위원장과 동행하여 조문을 경침한바 있다. 김일성주석의 서거하자

대상에 나라의 최고지도자로 부른 당과 정부와 국가의 일군, 대중이 모두 함께 포함되어 혼연일체가 되고있음을 직접 볼수 있었다.
나는 1994년 김일성주석 서거 당시에도 범민련 미주위원회 양은식위원장과 동행하여 조문을 경침한바 있다. 김일성주석의 서거하자

그런데 그러한 국가적생존의 위기 속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민중의 통치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군인이 혼연일체가 되고 나라의 위기에 간고히 대항하시면서 핵보유강성대국을 창건할 눈물겨운 력사적기적을 창조해냈다. 이러한 력사적생생한 체취때문에 북녘의

마자 자연재해까지 겹쳐 당하면서 북부조국은 고난의 행군을 3~4년이나 강행해야만 했다. 그야말로 구사일생의 국가적위기속에 온 나라가 빠져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적생존의 위기 속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민중의 통치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군인이 혼연일체가 되고 나라의 위기에 간고히 대항하시면서 핵보유강성대국을 창건할 눈물겨운 력사적기적을 창조해냈다. 이러한 력사적생생한 체취때문에 북녘의

는 하늘도 야속하다는 생각 했다. 하지만 평양시민들에게는 눈이 내리고 -10℃를 오르내리는 차거운 날씨가 하등의 문제로 되지 않았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령군차가 지나게 될 길에 눈이 쌓이는데를 넘겨버린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평양시민들은 남나로소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불과 포포를 가지고 나와 아스팔트길을 덮기 시작했고 목도리와 갈옷가지들을 펼쳐 눈이 내리는 길을 덮고 있었다. 삽과 호미, 비자루와 막대기를 들고나와 눈을

치고 얼음을 까고있다. 더 내린에게 가까이 다가와 눈을 치고 얼음을 까는가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을 편히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모습을 대하며 나도 눈물이 뜨거워지는것을 느꼈다. 김일성주석의 간대로부터 시작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시대에 일관된 인간사랑과 조국사랑의 정치리념은 《당, 군, 민 3위체》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이변의 대국상을 통해 온 세상에 환히 보여주었다.
나는 북녘의 대국상에 참가하여 말로만 듣고 알고있었던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현 지지도에서 사실은 쪽잡과 궤기잡에 대한 사실과 또 핵무기보다 강한 혼연일체 해 해 실감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왔다.
본사기자

통일의 길에 새겨진 숭고한 자욱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조국통일은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었다. 장군님께서 한평생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셨다.

주체87(1998)년에 들어서면서 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었다.

일일천추로 통일을 갈망해온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남조선에서의 《정권》 교체와 더불어 동족사이의 대결과 반목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였다. 주체87(1998)년 2월 공화국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는 남조선에 새 《정부》가 들어선 조건에서 북과 남이 단합하여 자주적으로 민족의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는 내용의 편지를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에 보내었다.

이러한 시기인 주체87(1998)년 4월 18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 참가자들에게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와통일을 이룩하자》라는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셨다.

그이께서는 서한에서 먼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마련되었던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의 력사적의의에 대해 분석하시고 수령님께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집대성하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의를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남기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림없이 계승하여 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할데 대하여 천명하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로작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셨다.

그 내용은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하며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이룩하여야 한다는것,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이께서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에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과 사상정신기초,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히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

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자주의 원칙이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이라고 강조하셨다.

그이께서는 또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기질을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튼튼한 사상정신기초로 내세우시고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에 기초하여,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정적전환을 하여 반복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꾼다면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것이며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셨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애국애족의 립장, 련북단합의 립장을 선택한다면 그들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벌여 대화와 접촉을 발전시키고 련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이께서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에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과 사상정신기초,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히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

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자주의 원칙이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이라고 강조하셨다.

그이께서는 또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기질을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튼튼한 사상정신기초로 내세우시고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에 기초하여,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정적전환을 하여 반복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꾼다면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것이며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셨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애국애족의 립장, 련북단합의 립장을 선택한다면 그들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벌여 대화와 접촉을 발전시키고 련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이께서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에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과 사상정신기초,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히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자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4일 성명을 통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발표한 해외의 전체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였다.

성명은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뜨거운 마음이 담긴 호소문을 조선반

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고 평화와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지금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아합한 각종 전쟁연습에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극도의 대립관계로 만들어 다가오는 4월 《총선거》에 리용하고자 비렬하게 책

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고자 주장하였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는 해외의 모든 애국세력과 손을 잡고 반민족,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성명을 밝혔다.

본사기자

제 처지나 돌보는것이 좋을 것이다

까마귀무리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 울리는 만무하다.

최근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들속에서 듣기도 역겨운 소리가 자주 울려나와 사람들의 귀를 소란케 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통일부는 《국외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공화국이 《불안정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황》이라느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편 보수집권세력들은 그 무슨 초청강연회, 학술회의도 하는데 저저마다 출연하여 《북의 체제불안정》을 떠들면서 그것을 여론화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다.

모든것을 거꾸로 보는데만 습관이 된 보수집권세력들이 떠들어대는 망발이 아닐수 없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전무후무하다.》, 《서방선진국도 꿈도 못꾸는 세상이 바로 북이다.》

민족의 어버이를 뜻밖에 잃은 비분과 슬픔을 금치 못해하며 그이와 영결하는 날 평양시안의 남노르소모두가 눈 오는 길에 이불과 모포, 목도리와 솜옷을 덧는 눈물겨운 장면을 보며 남조선인들과 해외동포들, 세계가 격정

에 잠겨 토로한 말들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오늘 공화국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이 몰아오는 그 무슨 《제재》와 《압살》의 모진 광풍에도 끄떡없이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길로 한치의 편차와 탈선도 없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일심단결된 무적멸종의 힘으로 핵보유국의 지위에 우뚝 올라서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이룩하려는 신념과 의지, 배짱을 가지고 노도와 같이 진군하는 공화국의 현실앞에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진실을 외곡하여 그 누구의 《체제불안정》을 떠드는것은 날로 발전하고 강화되는 공화국의 위력앞에 걸걸한자들의 단말마적박약으로서 탈보고 짓는 개소리라 불과파다.

지금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동네 북신세가 되어 앞뒤로 얻어맞고있다.

질런 4년간 저지른 천미사대적이며 반민민적, 반통일적죄악과 함께 사람들을 경악시키는 특대형의 부정부패 행위로 민심으로 부터 저주와 규탄을 받는것은 물론 저들의 집권연당에서

까지 개처럼 물리고있는것이 보수집권세력이다. 사면초가에 빠져 망해가는 제 집안꼴을 감추어보려는 어리석은 흉계로부터 출발한것이 바로 그 누구의 《불안정》 라형이다. 따지고보면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그 누구의 《불안정》에 대해 말할 체면도 없다.

불안정은 공화국에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남조선에 있다.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 99%의 못 가진자와 1%의 가진자로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남조선은 제도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하루한시도 지탱하기 힘든 불안정한 제도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겨우 연명해가는 보수집권세력이 그 누구의 《체제불안정》을 떠드는것은 실로 까마귀 배로 흉보는 격이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그 누구를 흉보기 전에 비참하고 가련한 제 처지나 돌보는것이 좋을 것이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친연 드물지 않을 공화국을 두고 그 무슨 《불안정》을 떠들면 떠들수록 역적무리들을 기어이 심판하려는 우리 민족의 분노와 중요시만 배가해줄뿐이다.

김응철

문을 닫아매고 무슨 《교류》인가

지난 6월 남조선의 통일부는 《국외》에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리산가족의 빠른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그 무슨 《남북리산가족교류추진기본계획》이라는것을 수립할것이라고 밝혔다.

남조선당국이 여기에 《리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외피를 씌우고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리명박일당의 철면피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

과연 북과 남 사이에 흘러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이 이루어

지지만 공화국은 흘러진 혈육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며 분렬로 인한 민족적재난을 종식시키려는 숭고한 념원에서부터 최대한의 자제와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인도주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제안을 거듭 내놓고 그 실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지만 리명박일당은 날이 갈수록 대결의 도수를 더욱 높인다 못해 함성침몰이

의 하나로 제기되는 금강산 관광문제해결에서도 부당한 조건을 내댈다 못해 《상봉을 못해도 좋다》고 하며 끝내 거부해나갔다.

남조선의 언론들이 《남쪽이 상봉정체화를 제안하면서 북쪽의 금강산관광제를 거부하는것은 훌륭한 가족들의 아픔을 돌보는 태도라고 보기가 어렵다. ...상봉을 정례화하려면 상봉장소인 금강산면 회소와 호텔 등이 다시 열

서는 《리산가족교류》를 떠들면서도 하늘과 바다, 땅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광란적인 북침전연습을 련이어 벌여놓고있다. 과연 알기 다른 이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남조선당국자들에게는 애당초 북과 남으로 흘러진 혈육들의 고통을 덜어줄 의사가 조금도 없다.

그들이 속에도 없는 《리산가족교류》문제를 다시 들고나와 수신을 떠는것은 민심을 오도하여 궁지에서 벗어나보려는 교활한 기만술책이다.

남조선당국이 련이어 저지른 대역죄에 대한 사죄 한마디없이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고집하는 한 북과 남의 흘러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그 어떤 인적 및 물적교류와 협력도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대내정책의 총과상으로 전 통을 겪는자들이 다소나나 체면을 세워보려고 《리산가족》문제를 들고나온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그들이 얻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김영일

우리 민족모두가 일일천추로 념원하는 조국통일의 문을 열자면 외세와 그 추종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저지파란시켜야 한다.

반통일세력이란 우리 나라의 영구분렬을 꾀하면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음모양모로 장애를 조성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미국은 남조선을 비범적으로 강점하여 우리 민족을 돌로 갈라놓은 분렬의 원흉이며 장장 60여년간이나 우리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오고있는 통일의 해방군, 방해자이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미국은 남조선의 호전세력과 아합하여 무모한 군

사적도발과 무력충장, 전쟁연습책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린해왔다.

침략적인 외세에 추종하여 민족의 통일지향에 엮어나가는 대결분자들도 반통일세력이다.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은 집권초기부터 온 겨레와 세계가 지지찬동한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극도로 대결적인 《비핵, 개방, 3 000》을 떠들어대면서 6.15 이후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을 모조리 외면하고 배척하였다.

반통일세력이 있는 한 북남공동선언들이 제대로 리행될수 없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될수 없다.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에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반통일세력이 있는 한 북남공동선언들이 제대로 리행될수 없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될수 없다.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에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것이다

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려 남조선주인 리윤섭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하였다.

그들은 그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주체사상, 조국통일, 혁명적근종로선

등을 서술한 책들을 가지고 선전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상을 류포하였다고 결코들면서 이러한 악행을 들춰냈다.

리윤섭은 파초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여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본사기자

그는 통일애국운동을 처벌하는 《보안법》의 악랄성에 대해 단죄하였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분렬을 끝내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반역《정권》의 판교죄악을 고발한다 (2)

북남관계의 악랄한 파괴자

나는 전통적우호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한다.》고 야망을 떨었으며 특히 2007년 11월 27일 《선저》유세장에서 선언리행에 대해 《퍼주기》니 뭐니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따지겠다.》고 회담을 저지른 자였다.

그는 권력의 자리에 틀고 앉은 후 북남공동선언들을 더욱 로골적으로 부정하며 그 리행을 한사코 가로막아나갔다.

리명박일당은 《남북정상회담의사항이 원론적인 수준이며 구체적이지 않다.》느니, 《《대북정책》을 리념의 자재가 아니라 《실용》의 자재로 알아가겠다.》느니 하며 북남공동선언들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고 나왔다.

지어 리명박일당은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대해서는 《배타적민족주의》, 《패쇄적민족주의》로 모독하고 《남북문제는 국제문제》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가지고는 해결할수 없다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리고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운운하며 북남공동선언들과 다른것들을 뒤섞어 그의 력사적의의를 깎아내리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리명박일당은 이처럼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 유린하면서 청와대는 물론 통일부, 정보원 등 《정부》의 각 부, 처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6.15평판단체들을 가족화해 탄압하였으며 지어는 여당 패거리들과 정치폭력강대들을 내몰아 북남공동선언에 도장을 찍은 두 전직 《대통령》을 모해, 배척하여 끝내 내 죽음으로 몰아넣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또한 특대형도발사건인 함성침몰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구실로 한 《5.24조치》의 실시와 《대북실리전》강화 그리고 반공화국인권운동과 북침전쟁소동 등으로 서로의 사상과 제도의 존중, 호상비방중상증지, 무력충돌방지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공동선언에 명시된 합의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파괴, 유린하였다.

리명박일당이 집권기간 여러차례 진행된 민간단체들의



본사기자 주광일

남조선과 미호전세력들이 온 겨레의 거둬들이는 정교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2월 말부터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일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3월에는 남조선 포항일대에서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후 23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사상최대규모의 연합 상륙훈련을 벌여놓으려 하고 있다.

내외호전광들의 모험적인 전쟁대결운동은 긴장된 조선반도의 정세를 강국단위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불안장소들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은 지난해 민족

셋 지고 불에 뛰어드는 호전광들

의 어버이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동족의 가슴에 칼을 내뿜드리는 천하에 둘도 없는 대역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그리고도 성차지 않아 새해 정초부터 《도발의 대가》가 어떻다니, 《단호하게 응징》하라느니 뭐니 하는 대결폭언들을 연이어 일삼으며 화약내리는 전쟁연습들을 연이어 벌여놓고 있다.

이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어 있다.

웅근 하나의 전면전쟁을 치를수 있는 대규모의 침략무력과 첨단전쟁장비들이 동원되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임의의 시각에 실천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

《키리졸브》, 《독수리》 등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은 철두철미 복침실동연습이며 새 전쟁도발의 전주곡이다.

새해 정초부터 미국은 새 국방전략이라는것을 발표하여 아시아태평양 《중점외교》에 비긴 저들의 검은 속심을 날날이 드러내었다.

최근에는 남조선군부우두머리들을 미국에 끌어들여 그 위협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에 맞도장을 높였다.

이와 함께 얼마전에는 남조선과 일본당국자들을 사촉하여 《3각군사동맹》강화를 노린 《대북정책공유》를 위한 차관보급비공개회담과 남조선장군 미8군이 사상최초로 투입된 미일연합군사훈련을 광란적으로 벌여놓았다. 앞으로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대규모훈련들이 미국의 일본주둔 미군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이것은 침략적인 미, 일,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고 그 화살의 초점을 공화국으로 돌려 전조선반도를 타고앞으로서는 미국의 오만한 침략전쟁기도가 가동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 집권세력이 상전의 부추김밑에 동족을 압살하기 위한 복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것은 그들이야말로 미국의 침략전쟁정책의 하수인이며 돌격대라는것을 신랄히 보여주

고있다.

그뿐아니라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적실권도 취지 못한 남조선이야말로 세계에 보기 드문 미국의 첩저한 식민지라는것을 보여준다.

벤벤스러운것은 내외호전광들이 대규모적인 전쟁연습계획을 발표하는 마당에서까지 그 누구에 대한 《도발》타령을 늘어놓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침략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까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방지되것은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자력력과 인내심의 결과라는것은 자라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미국과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주범, 북남관계파탄의 장본인, 전쟁의 원흉으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불을 불로 다스리는것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기질이다. 족박이나 쓰고 벼락을 퍼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호전광들은 전쟁열로 들떠 머리를 식히고 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것과 같은 부모한 복침전쟁격공행세를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호

강점자와 매국노가 빚어낸 비참한 현실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이 발표된 때로부터 45년이 지났다.

1966년 7월에 체결되어 다음해 2월 9일에 발표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은 강점국의 범죄적행위를 묵인조장하고 범죄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심히 굴욕적이며 불명예스러운 《노예문서》이다. 수십개의 조항으로 되어있는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은 사실과 구역, 재판권, 사무관제 등의 문제에서 미국의 일방적인타락을 증시한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지난 시기 남조선 강점 국은 치외법권적인 이 《협정》을 코에 걸고 남조선에서 살인과 란락, 강간 등 짐승도 낮을 풀릴 범죄적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극도의 인간중오 사상과 야수성으로 길들여진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적행위는 《실용정부》가 등장하면서 더욱 늘어났다.

남조선의 미군범죄건수는 2008년에 261명, 2009년에 325명, 2010년에는 380명으로 해마다 증가되었다.

강악을 금할수 없는것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불명예한 《행정협정》의 보호아래 머리카락 한오리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자기 스쿨로 돌아가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남조선에서 주인공세를 하고 있는것이다.

실제로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자들은 해마다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구속된 미군 병사는 불과 몇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얼마 있지 않다 풀려났다.

이것은 리명박 《정권》의 비할한 친미사대정책이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강점자의 잔인성과 횡포성, 야수성을 더욱 부추기는 《행정협정》이야말로 식민지예속문서이며 민족의 수치이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민족의 자주권수호를 웨치고있는 오늘 남조선인민들만이 강점국의 노리개로, 톱락물로 되고있는것은 현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친미사대자세, 노예적굴종의식으로부터 초래된것이다.

현 보수집권세력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 무슨 《미래지향관계》, 《혈맹》을 떠들면서 친미사대행위만 일삼아왔다.

지난해 위클리크가 폭로한 바와 같이 미국 소고기 수입에 대한 굴욕적인 태도도 그렇고 고엽제배출사건을 덮어놓고 무마하려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친미사대행위를 떨거하자면 말이 모자랄 정도이다.

그런 속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은 더욱 오만하여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각종 범죄를 매일과 같이 저지르고 있다.



남조선인민들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모한 복침전쟁연습을 규탄

지금 남조선은 《실용》 통치배들의 악정, 짝은 정지로 하여 정치, 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파국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실용》 통치배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의지를 안고 반리명박, 반 《정부》 기운을 고조시키고있다.

인민들의 항거에 부딪쳐 허우적거리는 현 집권자는 최근 저를 족속들과 측근들이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더욱 파멸의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 남조선에는 이른바 《대통령》이라고 하는 리명박은 명색뿐이고 반역자 리명박만이 존재할뿐이다.

다른것은 둘째치고라도 지금 리명박은 남조선인민의 저주와 배격을 받아 산산상방의 신세가 되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의 동상을 망치로 박살내는 《각에게》라는 제목의 동영상상이 대중의 인기를 모으고있다.

역사의 오물통에 집어던진 것이다.

집권 4년간 세상에서 못된것은 다 풀라가며 현 리명박에게 남조선인민들이 침을 뱉으며 저주와 비난을 퍼붓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안에서 친리제를 물아내기 위해 《실세용퇴론》을 들고 나오고있다. 물론 그것이 권력을 노린 시정배들의 알뜰과 싸움질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현 집권자는 여당내에서조차 따돌림을 받는 가련한 존재가 된것이다.

그를》에 속해있던 리상득, 리재오, 최시중, 박희태가 부정부패행위에 걸려들어 감옥신세를 저야 할 형편에 처해있다. 한마디로 리명박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들었다.

최근 현 집권자가 군부대들을 찾아다니며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호전광들을 광란적인 전쟁연습으로 부추기고있지만 그것은 죽어가는 반역집단의 말기증상,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리명박이당이 살아날 구명은 어디에도 없다.

내외여론들은 일치하게 리명박 《정권》의 파멸이 눈앞의 현실로, 시간문제라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있다.

고영수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침략(《실용》)이 폐기를 요구하여

사면초가의 신세에 빠진 반역 《정권》

고있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정말 속이 후련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떨어진다》는 글들을 저저마다 인터넷에 올렸다.

역사의 공정한 심판관인 민심이 리명박역도를 민족장본이 리명박이라고 하면서 그의 탈당을 요구하고 당

가라앉는 배에서는 뛰어나리 기마련이라고 이제 인민의 심판을 받게 될 현 집권자와 운명을 같이할수 없다는 것이 이 당대거리들의 속심인것이다.

실상가상으로 집권자의 《대통령》 당선과 정채수립 및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것으로 하여 이른바 《MB 《정권》 초고속세

력사의 오물통에 집어던진 것이다.

집권 4년간 세상에서 못된것은 다 풀라가며 현 리명박에게 남조선인민들이 침을 뱉으며 저주와 비난을 퍼붓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새누리당》(이전 《한나라당》)이 《국민의 약속》이라는 새 《정강정책》에서 《유연한 대북정책》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인 이 《정강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근본적인 변화》니 뭐니 하면서 마치 보수정당의 체질이 달라지거나 한것처럼 너스레를 떨었다.

러져나오는 부정부패의 악취속에 안팎으로 붕괴박산의 위기에 처한 남조선의 쿠부보수세력이 당의 간판을 바꾼다. 《환골탈퇴의 쇄신》을 한다 어쩌며 분주함을 피워대고있지만 뼈속까지 들어찬 민족반역의 체질이야 어디로 가겠는가.

리승만의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누리당》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쓴 오늘날 남조선쿠부보수세력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아나서는 죄악만을 덧씌운 범죄무리이다.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었으며 나라의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말살하고 외세

와 야합하여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책동한것이 바로 《새누리당》의 조상들이다.

동족을 《주되는 적》으로 규정한 《주적》개념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할데 대한 남조선 각계의 요구에 대해 《북을 국가로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북정권을 협의할 상대가 아니라 타도할 상대로 여겨야 한다》고 하면서 양탈을 부린것도 다름아닌 이전 《한나라당》 폐기 리명박이다.

외세의 지휘밑에 복침전쟁을 벌이기 위해 《진식 작전통제전진행》을 하루라도 더 연기해달라고 바다가 건너 미국땅까지 찾아다니며 구걸행위를 벌인것도 당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이였고 동족을 《주적》으로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약정을 동군자들도 그 보수집단의 술개박진 민족반역자들이었다.

권력을 다시 잡기 바쁘게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대강인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해 《배반적민족주의》의 정체가 결코 달라질수는 없다.

독사는 백번 허물을 벗어도 독사이다.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야유와 조소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보수세력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민심의 반응은 차질기만 하다.

동족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해온 민족반역의 무리인 《새누리당》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김광률

《한나라당》이 당명 《정책》, 당마크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당명은 《새누리당》으로, 《정강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당마크는 흰바탕에 빨간로또모양으로 되였습다.

가관은 이에 대한 남조선인민들과 야당들, 지어 보수세력내에서까지 야유와 조소가 그칠새 없다는것입니다.

어떤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보기로 합시다.

《새누리당》이란 당명에서 《새》는 《새물다》,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 말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당》이란 의미라고 합니다.

뜻은 좋은듯 한데 왜 야유거리로밖에 안될까요?

원래 원조상인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등 몇차례나 당명을 바꾸어왔지만 그 식이 장식입니다.

간관만 바꿨을뿐 친미사대, 파쇼독재, 동족대결, 부정부패의 본성은 그대로 이어져왔어가요.

그러니 과거는 물론이거니와 현 집권기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에게 끼친 죄악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한마디 없이 당의 간관이나 바꾼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있을가요?

또 리명박을 비롯하여 최군에 드러난 부정부패의 원흉들이 그대로 《유물》로 남아있는 형편에서 파

연 《한나라당》의 체질이 바뀔수 있을가요?

이런 옛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양들에게 못된것만 해온 승냥이가 늙어서 기력이 없고 이발까지 빠지게 되자 한가지 얇은 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양들과 화친하겠다고 선 포하고 자기 이름을 《선양이》로 고쳤다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들이 승냥이를 《선양이》로 부르며 받아줄리 만무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한나라당》에 표를 주었지만 차폐것은 빈부격차, 실업대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빈곤뿐입니다.

이제 남조선인민들은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함강에는 눈물겨운 날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집은 있어도 주택구입에 네 배무의 리자부담으로 가난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 직장은 있어도 저임금으로 빈곤한 《워킹푸어》, 지식들의 교육비대문

을 포함하여 사실상 실업자는 520만명이며 그중 청년실업자는 110만명이라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문갑하여 《빠를 짙는 노력》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남조선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죄악에서 벗어날수 있을가요.

빈달구지 굴러가는 소리가 더 요란하다고 더 내놓을것이 없어 늘 하던 타령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야당의 《북지정책》을 그대로 베껴다 옮기는 텅 빈 머리

손가락질을 하고있습니다.

새동지, 어금어, 땅그릇, 지어 번기처럼 생겼다고 말입니다.

《누리》라는 말에는 농작물을 망친 메뚜기떼라는 뜻도 있어 빨간 메뚜기로, 퇴물과 부정부패로 모은 돈을 담은 그릇으로, 닭의 볏으로도 채색되고있습니다.

어디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볼가요.

흰바탕에 빨간색이니 《아에 《일장기》를 빼다 박았다》, 《뼈속까지 친미》를 면두에 두고 《성조기를 더 금은입》으로, 《책은 치우려 련상게 한다》, 《역사 《새누리당》은 새미리당이 맞다》, 《역시 밥그릇싸움을 상징하는군요》...

보수패당이 당명이나 《정책》을 바꾼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역시 콩심은대는 콩이 나는 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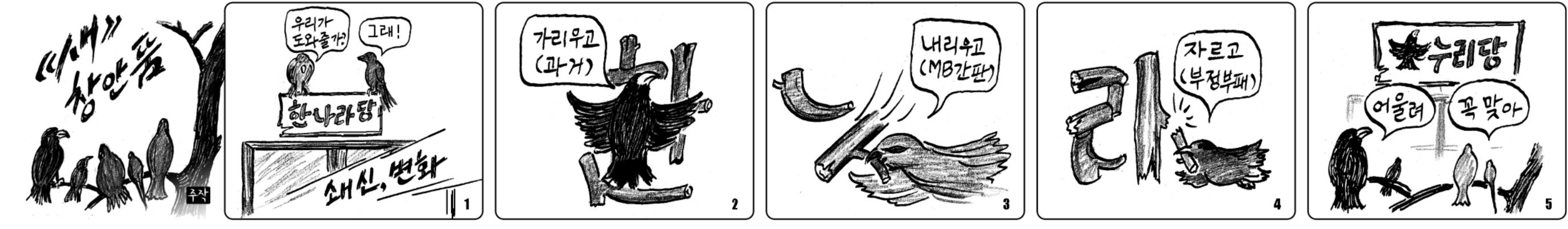
이전엔 안그랬던가요.

《정권》을 강탈할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간판을 바꾼다. 《정책》을 바로 한다. 《복지》를 편다. 《쇄신》을 한다. 《민주화》를 실현한다... 말이 다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의 귀를 소란케 하였지만 결국은 인민들의 눈에서 파눈물을 내게 한것밖에 없습니다.

씩을대로 씹은 보수패당이 친백변신한다 해도 남조선인민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구세력은 고목에 색칠을 했다고 기둥으로 쓸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사기자 김정혁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 어린 선물이 빙상취기 선수들에게 전달되었다. 여기에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 있다.

언제나 나라의 체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12월 4일 몸소 빙상관에 오셔서 빙상취기 선수들의 모범출연을 보아주시었다. 곁에도 그리던 장군님 앞에서 모범출연을 하게 된 취기 선수들은 한없는 격정에 넘쳐 평시에 터만 한 자기들의 빙상취기기술을 남김없이 펼쳐 보여드렸다.

이날 빙상취기 선수들의 모범출연을 보아주시고 높은 평가와 감사를 주신 그이께서는 빙상취기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좋아하시면서 세상에

은반우에 내려치는 신심과 열정

서 제일 좋은 빙상취기 스케트를 보내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었다. 사상과 평도, 덕망도 위대한 장군님그대로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빙상취기 스케트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이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최상급의 빙상취기 스케트를 마련하여 어버이장군님의 선물로 보내주시었던 것이다. 절세위인들의 축복과 은정 어린 선물을 받은 빙상취기 선수들, 지금 이들의 신심과 열의는 하늘을 찌를 듯 높다. 아시아와 세계패권을 쥐는

것, 이것이 미더운 빙상취기 선수들의 가슴마다에 품어넘치는 드높은 목표이다. 공화국에서 빙상취기는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취기종목이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평양에 현대적인 빙상관이 일떠선 30년전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때부터 공화국의 빙상취기는 빠르게 발전하였다. 수백여년에 걸친 유려한 취기력사에 비해볼 때 비록 년륜은 짧아도 지난 시기 공화국의 취기선수들은 국제무대에서 훌륭한 경기성과를 이룩하였다. 처음으

로 막을 올린 겨울철아시아 경기대회 빙상취기 생경기에서 남태영, 김혁선선수가 우승하여 과문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경기대회에서도 우승자, 순위권 입선자들이 배출되고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빙상취기 선수권대회들에도 적극 진출하였다. 최근 공화국 선수들의 취기기술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모범출연에 참가한 선수들의 대부분이 전도도가 양양한 10대, 20대 초엽으로 양식 국제무대에서 순위를 다투고 있는 경쟁력 있는 선수들로 자라났다.



최근년간 공화국의 각지에 창광원식편의봉사기지가 개건확장되거나 새로 건설되고 있다.

자료를 의하면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창광원식편의봉사기지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훌륭하게 꾸러져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창광원식편의봉사기지는 평양의 보통강기슭에 건설된 창광원을 본보기로 하고 있는 대중적인 위생문화편의봉사종합기지를 의미한다. 사람들이 목욕과 리발, 미용, 수영과 물놀이를 할 수 있고 청량음료 등을 봉사받으면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훌륭한 편의봉사시설과 조건들이 그 흔하게 갖추어져 있는 창광원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손길아래 1980년 3월말에 일떠섰다. 개원후 지난 30여년간 연 수천만명의 근로자들에게 위생문화봉사를 진행하여 온 창광원은 실비나 위생문화조건 등에 있어서 공화국에서 으뜸가는 대중편의봉사기지가 되었다.

최신설비들로 갖추어진 창광원에서 근로자들이 목욕, 수영, 물놀이, 리발, 미용 등 여러가지 봉사를 받고 있는 것은 돈에 의해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좌우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창광원과 더불어 생겨난 또 하나의 사회주의문명은 오늘날 온 나라 곳곳에서 활짝 꽃피고 있다. 창광원이 일떠선 이후 평

늘어나는 창광원식편의봉사기지들

양의 동평양지구에 창광원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문수원이 건설되고 시안의 모든 구역들에 창광원식편의봉사기지가 마련되었다. 또한 각 도, 시, 군들은 물론 많은 공장과 협동농장들, 기관, 기업소들에까지 현대적인 대중편의봉사기지가 꾸러지게 되었으며 그러한 편의봉사기지들은 《은정원》, 《은덕원》 등 뜻깊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여기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은정을 길이 전하려는 인민들의 마음이 깃들여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화국을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만들어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생전에 나라의 여러곳에 창광원식편의봉사기지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꾸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리하여 전국 각지의 200여개 창광원식편의봉사기지가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평양시 력포구역 은덕원, 삼지연군 천지원, 신의주시 은덕원, 함흥시 사포구역 은덕원을 비롯한 각지의 창광원식편의봉사기지들은 현대적인 봉사설비들을 그 흔하게 갖추어놓고 인민들에 대한 봉사를 적극 진행하고 있

다. 종전의 3배로 개건확장된 만포구역은 정원, 3단조약대까지 갖춘 웅장한 수영장을 자랑하는 천천은덕원, 조선식합각지봉을 씌운 민족적형식의 향산군 은덕원, 특수시설까지 갖추어진 구린 사리원시 은덕원, 최신설비들이 일식으로 구비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용광원,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철산원,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명당원, 광포오리공장의 광포원 등 각지에 일떠선 창광원식종합봉사기지들은 언제나 근로자들로 흥성거리고 있다. 인민의 훌륭한 치료봉사기지로 전변되어

온 나라에 알려진 온천군 은덕원과 명천군 은덕원, 황해남도의 삼천군, 배천군, 용진군, 은천군의 《창광원》들에서는 온천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근로자들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각계층 근로자들이 끝없이 찾아와 훌륭한 조건에서 위생문화사업을 하며 충분한 체력단련과 즐거운 문화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물놀이장에서 물장구를 치며 떠선 창광원식종합봉사기지들은 언제나 근로자들로 흥성거리고 있다. 인민의 훌륭한 치료봉사기지로 전변되어



제1목욕탕 개건현대화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빙상취기종목에서 금메달은 지금까지 유럽이나 아메리카 선수들의 독점물로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년간 아시아 선수들이 난도높은 기술요소들과 어려운 예술적형상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와 만난 리철운 빙상협회 서기장은 최근 아시아 선수들이 점수가 높은 조약, 단지기기술동작들을 확신성 있게 수행하면서도 재치있고 빠른 연결동작들로 운동을 구성하고 음악과 동작을 밀착시켜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였다.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아시아 선수들이 메달의 30%를 획득한 사실이 이것을 실증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리철운서기장은 하루빨리 빙상취기기술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해 높은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우리 식의 경기원칙과 경기방법의 요구대로 취기발전방향을 설계하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내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경기마당에서 우승하여 어버이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크나큰 믿음과 기일에 금메달로 보답해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최고봉의 예술》

평양교예단 배우들이 높은 기교와 독특한 동작들을 펼쳐보일 때마다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삶의 희열과 랑만을 경험한 동작들로 보여주는 《2인그네》, 《공중 드림바울》을 타고 일제주와 여러가지 복잡한 기교들을 펼쳐 보이는 《출중심》, 빠른 순동작으로 갖가지 제주를 부리는 《손재주》 등 볼거리를 보면서 관람자들은 연방 감탄

한모금의 물에서 받은 나의 충격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해외체류나날이 길어질수록 나는 조국에서 다는 알수 없었던 사회주의제도의 교마음에 대하여 매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었다. 하루는 변화한 이국의 야경을 부감하러 동포와 함께 밤거리에 나선적이 있었다. 여기저기서 번쩍이는 화려한 장식등들의 불빛은 눈이 부시며 미처 바라보지 못할 정도였다. 마치도 대낮과 같은 이국의 밤풍경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다. 그러나 나의 이 생각이 순간의 착각에 불과하였음을 그때까지는 몰랐었다. 화려한 야경을 부감하던 나의 시야에 문득 거머쥐어 준비하게 늘어난 고층아파트들이 어수룩하게 안겨

왔다. 그런데 의아한것은 보기에 몇백세는 살고있어야 할 덩치 큰 아파트들에서 불빛이 비쳐나오는 집이 얼마 없다는 사실이었다. 《불빛이 꺼진 집 지들은 아직 입사를 하지 않은 새집들인가보지요?》 《아니네요. 다 사람들이 살고있는 집들이예요.》 해외동포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또 한번 절감했다. 내 사는 사회주의조국은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를. 비록 나라사정때문에 아직 전기를 풍족히 쓰지는 못하지만 공짜나 다름없는 전기요금으로 전기를 쓰고 사는 우리 인민들이 참으로 행복해보였다. 회천발전소가 완공되고 경제강국이 건설되는 그날이면 우리 조국은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리상촌이 되리라. 본사기자 김춘경

《조신의 예술은 사람들에게 고상한 문화정서와 삶의 희망을 안겨주는 세계최고봉의 예술이다.》 ... 이것은 조신의 교예예술에 매혹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경탄의 목소리이다. 얼마전 이탈리아의 로마에서는 관록있는 세계교예 전문가들과 로마시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제28차 《플린 씨르쿠스》 국제교예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축전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국제교예무대에 널리 알려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몽골, 카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교예배우들이 참가하였다. 공화국의 교예배우들은 이번 축전에 교예 《날아다니는 처녀들》, 《2인그네》, 《출중심》, 《손재주》 등 볼거리를 가지고 참가하였다. 축전 전기간 이탈리아의 로마 펜타드 트리체교예극장은 평양교예단 배우들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모여온 관람객들로 련일 초만원이 되었다.

이런 축전무대에서 가장 이채를 띤 종목은 평양교예단에서 출연한 《날아다니는 처녀들》 종목이었다.

지금까지 공화국교예분야에서 4회전동기는 남자들만 수행함으로써 세계공화국교예예술의 최고경지에 당당히 올라서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춘예배우의 앞으로 4회전동기와 한일심배우의 뒤로 돌면서 벌써 4회전동기를 넘긴 것도 없지 않다. 눈물 찜찜하게도 4회전동기를 하는 김혜성배우의 아슬아슬한 기교동작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감으로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축전이 끝나고 진행된 시상식에서 평양교예단 배우들이 출연한 교예 《날아다니는 처녀들》 종목에 1등상이 수여되었다. 이탈리아의 정계, 문화예술계인사들과 여러 나라 교예배우들은 평양교예단의 예술인들을 찾아와 한결같이 최고이다. 훌륭하다고 하면서 회한한 공연을 본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축전예술총감독 러시아 오프레이는 《조신의 교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는 최고봉의 예술이다. 최첨단기교인 앞으로 4회전동기와 앞으로 4회전동기, 눈싸매고 4회전동기를 하는 《날아다니는 처녀들》은 마치 컴퓨터로 조작하는것처럼 완전무결하다. 아슬아슬하면



본사기자

방문지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보배공장

최근 몇 해사이래 북창식료가공공장의 내외부가 물라보게 달라졌다.

얼마전 북창식료가공공장을 찾은 우리는 리성일기사와 함께 현대적으로 꾸러진 공장을 돌아보았다. 공장이 갖 조정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을 전혀 알아볼수 없이 새롭게 일신한 공장구내에는 한복의 그림을 련상시켰다. 건물 안이라고는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러진 생산설비들마다에서는 보기만해도 먹음직스러운 식품들이 줄줄이 쏟아져나오고 있었다.

《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최첨단기술을 생산에 널리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리성일기사는 인민을 위해 참담하게 복무하자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최신과학기술을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장에서 짧은 기간에 컴퓨터에 의한 식료품생산공정을 새롭게 꾸리는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보배공장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생산전반을 현대화하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무엇보다 식료품의 질이 종전에 비할바없이 높아져 얼마전 도에서 진행된 인민소비품전시회에서 자기 공장에서 만든 식료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완제품 포장에 이르는 생산전반을 자동화하니 생산도 부쩍 늘어나 사람과 파자, 공사탕, 강정, 빵을 비롯한 수많은 식료품들을 만들어 군안의 주민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풍우유를 풍족히 생산하여 군안의 락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있었다. 그간의 행군을 하는 어려웠던 날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풍우유생산을 하루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이들의 마음을 가슴 후덥게 느낄수 있는 것이다. 공장의 자랑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공장에서 만든 수습가지에 달하는 장절임제품들도 군안의

주민들로부터 호평이 자자하다고 리성일기사는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공장의 종업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일군 원료기지에서 식료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는 사실도 부쩍 흥미를 자아냈다. 공장에서 폐지, 잡초, 닭, 오리, 도끼를 비롯 포장에 이르는 생산전반을 자동화하니 생산도 부쩍 늘어나 사람과 파자, 공사탕, 강정, 빵을 비롯한 수많은 식료품들을 만들어 군안의 주민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풍우유를 풍족히 생산하여 군안의 락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있었다. 그간의 행군을 하는 어려웠던 날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풍우유생산을 하루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이들의 마음을 가슴 후덥게 느낄수 있는 것이다. 공장의 자랑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공장에서 만든 수습가지에 달하는 장절임제품들도 군안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는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생활로 간주되고 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사회주의가 인민들에게 자주적인 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보물을 안겨주기에 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자주적인 창조적인 삶의 복을 이 땅의 천만대중은 사회주의복이라고 긍지높이 부른다.

돌이켜보면 우리 겨레는 조상대대로 오복을 누리며 근심걱정없이 사는것을 최대의 소원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그 소원은 통치배들이 인민에게 군림하는 사회에서는 실현될수 없었다. 예마는 땅에서 아슬한 꽃이아 일한 열매를 기대할수 없듯이 사회악이 판을 치는 썩고 병든 사회, 인민들이 돈의 노예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의 참된 삶의 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직 인민을 하느님처럼 내세우는 공화국의 풍속에서만 꽃피날수 있는것이 인민의 복, 사회주의복이다.

공화국인민들이 누리는 사회주의복은 우선 자주적인간인의 높은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나가는 참된 삶의 복이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값높고 궁지높은 생활은 자주적인 생활이다. 하루

를 살아가 자주적인리를 가지고 몇몇학대 살아가는것이 진정한 행복만 만족을 느끼게 된다.

인민을 하느님처럼 내세우는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에게 모든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인민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선견할 권리와 선거권을 권리를 가지고 실질적인리를 당당히 행사하며 존엄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자주적존엄은 무적의 총대에 의하여 굳건히 수호되고있다. 권력이 약한탓에 나라를 잃고 망국노의 실음이 하늘땅에 사무치던 민족수난의 시기에 빼앗긴 복을 마음껏 누리려는 인민들의 열정과 활력의 산물이다. 전체 인민이 너도나도 떨쳐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로동속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인민의 생활에는 자주적인리로서 누릴수 있는 만복이 끊임없이 깃들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이 누리는 사회주의복은 또한 궁지높고 보람찬 창조적로동의 복이다. 인간이 기쁨과 행복은 결코 즐기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사람은 창

조적존엄이것으로 하여 로동에서 보람을 찾고 자기의 창조물에서 커다란 만족을 느끼게 된다.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며 고통을 겪고 있어 마음까지 꿩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취약성을 통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절감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로동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실질적인리를 당당히 행사하며 존엄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자주적존엄은 무적의 총대에 의하여 굳건히 수호되고있다. 권력이 약한탓에 나라를 잃고 망국노의 실음이 하늘땅에 사무치던 민족수난의 시기에 빼앗긴 복을 마음껏 누리려는 인민들의 열정과 활력의 산물이다. 전체 인민이 너도나도 떨쳐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로동속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인민의 생활에는 자주적인리로서 누릴수 있는 만복이 끊임없이 깃들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이 누리는 사회주의복은 또한 궁지높고 보람찬 창조적로동의 복이다. 인간이 기쁨과 행복은 결코 즐기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사람은 창

단상 화려한 어름

《그런데 왜 창가에서 불빛이 안보입니까?》 들을수록 더욱 이상하여 이렇게 물으니 그제서야 동포가 알만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주는 것이었다. 《기자선생은 아직도 여기가 조국땅인줄 아는가보지요. 여기는 물도 돈이지만 전기도 돈입니다. 전기세가 너무 비싸니 밤마다 불을 켜

수 없어 불을 끈 방이 더 많아요. 그나마 전기가 얼마 떨어지지 않는 회미만 전등을 켜 놓다니 아파트들의 창문이 다 어두워보이지요.》

들어보니 그럴만 하였다. 화려한 거리뒤에는 어둠이 숨겨져 있었다. 그 어둠보다 더 어두운것은 인생의 힘겨움이었고 어둠이었다. 해외동포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또 한번 절감했다. 내 사는 사회주의조국은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를. 비록 나라사정때문에 아직 전기를 풍족히 쓰지는 못하지만 공짜나 다름없는 전기요금으로 전기를 쓰고 사는 우리 인민들이 참으로 행복해보였다. 회천발전소가 완공되고 경제강국이 건설되는 그날이면 우리 조국은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리상촌이 되리라. 본사기자 김춘경

회의 참모습이 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적인것을 우선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국가의 사회적책으로 하여 누구나 건전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고있다. 전반기11년제의 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 정후양성을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일관성있게 실시되고 《닭알》, 《풍우유》, 《대동강맥주》 등 사랑의 글발을 새긴 차들이 인민을 찾아 달려고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공화국인민들은 사회주의품속에서 가장 고상하고 문명한 사상과 정신, 도덕의 소유자로 되고있으며 근중문화예술과 대중체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하며 행복을 누리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이 누리는 복은 천만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였기에 살며 일하는 크나큰 궁지를 안고 사회주의복을 누리는 공화국인민들의 궁지는 하늘을 찌를듯 이 높다. 리철희

